‘탈환전’ 나선 러시아…트럼프 취임전 국경 정하기 격화

북한, 병력 1만명 이상 러시아 동부 파견…언어 장벽 등 극복 관건

나토·EU 회의서 북한 참전 문제 논의…한국 “단계적 대응 취할 것”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 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 문제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CNN은 지난 1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는 12일 쿠르스크주에 전개 중인 러시아군과 북한군 총 5만명이 자국군과 교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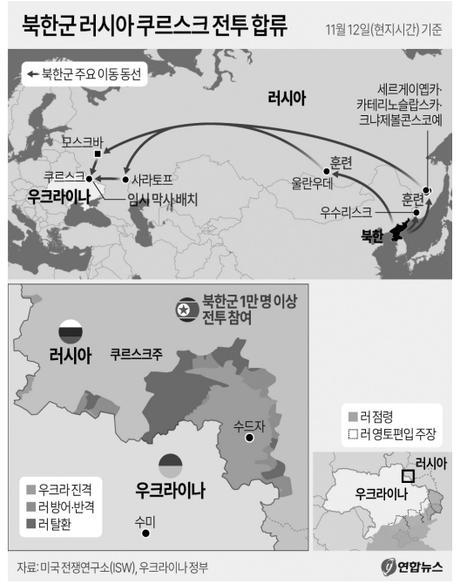
이 관리는 일부에서는 격렬한 전투로 북한군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투는 우크라이나군이 거점을 둔 쿠르스크주 수자 서북쪽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자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 계측소가 있는 요충지다.

개전 이후 영토 방어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 내부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그로 인해 쿠르스크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적법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와 관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對)우크라이나 전투에 북한군의 참여(entry)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의 노력도 언급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상 확인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지켜봐 가며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10월말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쪽에 곡사포 쏘는 러시아군. /연합뉴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 측이 북한 비핵화 불가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비핵화가 대북 정책의 ‘초석’이라며 “우리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일본 및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 문제에 대한 3각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라진 ‘어른들의 축’…트럼프 2기 안보라인 장성 배제”

‘충성파’로 채운 외교·안보 진용

트럼프 주도 정책 견제 쉽지 않을듯

‘어른들의 축’은 더 이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까지 발표한 집권 2기 외교·안보 수뇌부에는 군 장성 출신들이 배제된 것이 눈길을 끈다.

집권 1기 때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며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해병대 4성 장군 출신),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육군 3성 장군 출신) 등 장성 출신의 전직 군인들이 이번 첫 외교안보 라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육군 특수전부대(그린베레) 출신으로 주방위군 대령까지 지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나 피트 헤그세스(예비군 소령) 국방장관 지명자는 아프가니스탄 등 전장 경험이 풍부해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인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사령관 등의 위치에서 전쟁에 임해본 장성급들이 가질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집권 1기 때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몇 차례 거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잘 이해하는 매티스 전 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존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력풀이 빈약했기에 장성 출신 등 외부 베테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집권 1기 때와 달리 집권 2기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전원 ‘트럼프 충성파’ 인사이더들로 구성된 것은 시사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견제장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해외 분쟁에 대한 군사개입 최소화와 ‘거래’ 논리에 입각한 동맹관을 기초로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낼 권력 내부의 ‘다른 목소리’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국방장관 지명자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각각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의제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자 기사에서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해외에 배치된 군대를 철수하고 군대를 이용해 국내 소요 사태를 진압하라는 요구에 저항하는 민간 및 군 지도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국방부 인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한편, WP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 “(트럼프 집권 1기 때) 유명한 전쟁범죄 피고인에 대한 사면 또는 감형을 트럼프에게 두드러지게 요청했기 때문에 특별히 논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서에서 군내 ‘진보주의’와 과도한 PC(정치적 올바름) 중시에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 온 헤그세스 지명자가 국방장관에 취임하면 군 수뇌부에 대한 인적 개편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팀이 현역 3성 또는 4성 장군들의 리더십을 검토해 부적격자에 전역을 권고하는 이른바 ‘전사 위원회’(warrior board)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천장 뚫린’ 비트코인…사상 첫 9만달러 돌파

트럼프 당선 이후 30% 급등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급상승한 비트코인이 12일(현지시간) 주춤한 듯하다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며 9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0% 오른 9만45.3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후 오후 4시를 넘어서는 8만9000달러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미 동부 시간 이날 새벽 8만9900달러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매수세는 9만달러선 벽을 넘지 못했고 차익 실현이 대거 출현되며 가격은 8만50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8만9000달러선을 몇 시간 만에 회복하며 9만달러까지 질주했다.

미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현재까지 약 30% 급등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머지않아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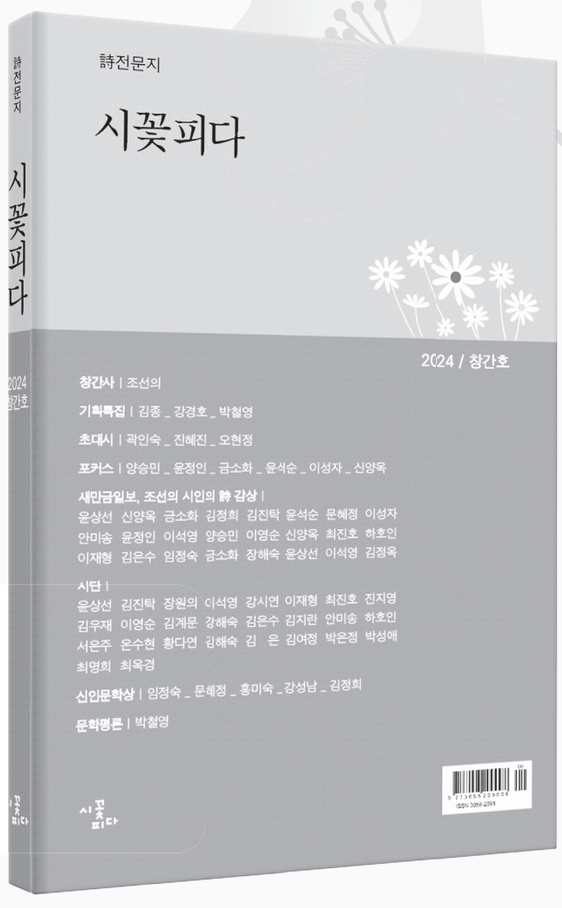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주요 이벤트에 베팅할 수 있는 플랫폼 ‘칼시’에서 이용자의 60%가 내년 1월 이전에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데 베팅했고, 이용자의 45%는 이달 중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베팅했다.

투자은행 H.C.웨인라이트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콜로니즈는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정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주요 가상화폐들은 이날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4시 25분 기준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17% 하락한 3287달러, 솔라나는 2.69% 내린 213.26달러에 거래됐다. 일론 머스크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7.90% 급등한 0.38달러에 거래됐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